

3. 「羅津·先鋒 地帶」投資 誘致 說明會

- (背景)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외화 부족난 완화, 김정일 권력 승계 기반 조성 등 경제·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苦肉之策으로 보임
- (特徵) 현실 위주의 투자 정책 전환, 특구 현지의 운영권한의 확대,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 (展望) 남북 대화 재개 및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肯定的이나 SOC 시설 및 제도적 안전 장치의 미비, 제한적인 개방 정책 등 本格的인 投資에는 限界
- (活用 方案) 단기 이익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對北 進出 橋頭堡 확보용

9월의 북한 현지 투자 설명회에 앞서 일본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대규모 순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함

- (概要) 북한은 나선·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積極的인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함
 - 북한은 羅先 투자 설명회(9. 13~15)의 참가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순회 事前 說明會를 열었음
 - 日本 설명회(7. 14~24)는 '95년 9월말(북경)에 이은 두번째이나 이번처럼 장기간 여러 도시를 순회하기는 처음임(김정우 대외경제협력위원장을 포함 5명)
 - 이와 별도로 림태덕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일행이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 4개국 巡訪 誘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7. 13~7. 30)
- (基本 立場) 나선 지대를 경제난 해결과 체제 유지를 위한 돌파구로 생각하고 中繼 貿易 基地 및 加工 輸出의 생산 기지, 觀光 기지로 조성하기로 함
 - ① 대외 시장 개방의 상징적인 실험장 및 선전장으로 활용 ② 체제 유지를 위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간의 완충 지역으로 활용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 및 외화 부족난 완화 목적

- (背景)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김정일 권력 승계 등 經濟·政治的인 측면을 고려한 苦肉之策으로 보임
 - (經濟面) 투자 부진, 심각한 식량난과 외화 부족난, 두만강 인접 국가들과의 投資 誘致 競爭 등에 기인

- 1995년말 현재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내 외국인 투자 실적은 총 2.3억 달러로, 이중 北韓의 羅先地帶는 0.2억 달러(8.7%)로 중국 연변지방의 1.5억 달러(65.2%)와 러시아 연해지방의 0.6억 달러(26.1%)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서방 채권단의 집단 소송(13.7억 달러) 및 중국과 러시아의 누적된 부채(65.1억 달러) 등 심각한 외화난으로 식량난의 內憂에다 外患의 二重苦를 겪음

정치적으로는 원만한 김정일 권력 승계 목적임

- (政治面) 김정일의 원만한 권력 승계와 대일 경협을 통한 北日間 국교 정상화 촉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
- 北日 수교 목적도 결국은 戰後 배상금(50~100억 달러 예상) 수령을 통한 경제 재건에 기대

조기 성과 사업 우선 추진

- (特徵) 현실 위주의 投資 政策 轉換, 현지 운영권한의 擴大,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 니이가타 동북아경제회의(96. 2. 7~9)에서 투자 유치 규모의 현실화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을 수정함
- 開發 原則을 ① 기존 시설의 최대한 이용 ② 초기 투자가 적게 들고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 등에 두고 최우선 순위를 中繼 輸送業과 觀光業으로 조정(이 두 업종은 김일성 遺訓 事業임)
- 공업 부문 투자 목표를 생필품 위주의 경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현실화함 (당초 68개 분야 36.6억 달러→ 58개 분야 4.4억 달러)
- 羅先 지대내의 10개 공업구 가운데 입지가 가장 유리한 신흥 자구를 우선 개발함
- 나진 선봉 지역내 토지 임대권, 기업 창설 심의권, 자산 운영권 등의 모든 권한을 現地에 委任하고, 상품 가격은 需要·供給의 市場 原則에 의해 결정함

- 특구내에서 생산한 품목의 내수 시장 진출 허용과 제3국적 단체도 비자없이 방문 초청장만으로 입국 허용
-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남한 기업의 투자없이 실질적인 서방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南韓 當局과도 대화할 用意가 있음을 시사함

중단된 남북 대화의 재개로 경험 활성화가 기대되나 본격적인 투자에는 한계

○ (展望) 남북 대화 재개 및 한반도 긴장 완화에 肯定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본격적 투자에는 限界가 있음

- (肯定 效果) 남한에게는 중단된 남북 대화 재개 및 4차 회담 유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북한에게는 수출기업 육성과 외화 가득을 통한 경제난 완화 효과
- (限界) 철저한 局地的 개방 체제 고수, 특구내 SOC 시설의 부족, 한반도 긴장 요인의 상존,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성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는 한계

단기 이익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對北 진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접근

○ (活用 方案) 단기적 이익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經濟的 價値) 羅先 地帶는 부족한 기반 시설에도 불구하고 시범 지역으로서 경제적 장점을 지님
 - 羅先 地帶는 여타 지역에 비해 ①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② 세제 등 제도상의 지원 ③ 무비자 및 국경 무역 허용 ④ 정치적 민감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지역인 점 등에서 장점이 있음
- (活用 方案) 短期的으로는 중계 무역과 임가공 위주의 제조업, 관광·서비스업에 합작 투자 진출이 유망
 - 中長期的 觀點에서 자본집약 부문과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방안도 마련해야 함

(홍순직)